

카르멘 라포렛의 『나다』(Nada): 다성적(多聲的) 고전의 현재*

서 은 희
(한양대학교)

◆ 국문초록

본고는 1939년 스페인 내전이 끝나고 프랑코 정권이 들어선 후 1944년에 발표된 소설 『나다』를 한국의 인문학계에 소개하며 이 작품의 다양한 의미를 역사, 사회, 문화적 맥락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무명의 젊은 여성 카르멘 라포렛이 이 소설을 문학상에 투고하여 당선되자 사회 전체에 『나다』 붐이 일어났다. 작가의 젊음도 충격적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이전까지의 스페인 소설 전통과 단절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새로운 관점과 내용을 독창적인 문체로 표현했고, 그럼으로써 사회 발전과 함께 정체되어 있던 문학사의 흐름에 혁신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소설이 7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스페인 현대소설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가운데 하나로서 고전의 위상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의미의 다성성이다. 이 소설의 텍스트는 특유의 모호성을 통해 서로 상반되는 복수의 해석을 허락하고, 또한 시간과 함께 변해가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계속 새로운 의미를 제공한다. 주인공의 성장을 그린 소설 혹은 반대로 주인공을 포함한 모든 인물들의 좌절에 대한 소설이기도 하며, 기괴한 개인들을 그린 고딕소설이면서 전후의 황폐화된 스페인을 묘사하는 사회비판소설이고, 가부장제의 이성애 신화의 허구를 드러내면서 나아가 동성 간 연대 혹은 욕망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이렇듯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가치들을 추가적으로 포섭해 가는 텍스트의 넓은 다성성이야말로 『나다』를 진정한 의미의 고전이 되게 하는 속성이다.

주제어 : 『나다』, 카르멘 라포렛, 다성적 텍스트, 사회적 맥락과 새로운 해석

* 이 논문은 2016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16-G).

I. 서론

카르멘 라포렛(1921-2004)의 1944년작 『나다』는 발표 직후부터 붐을 일으켰고 세월이 지나며 스페인 현대문학사의 정전으로 자리했다. 마초이즘(machoism)이라는 용어가 스페인어인 마초(macho: 동물의 수컷, 남성성이 강한 남자, 남성들이 서로를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에서도 엿보이듯,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남성중심적 문화를 유지해온 나라이며, 극우파의 승리로 끝난 내전 직후였던 당시의 사회는 여성에게 더욱 억압적이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23세의 젊은 여성이 발표한 소설이 즉각적으로 평단의 극찬과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는 사실은 이 작품이 당대의 소설들과 비교해 여러 면에서 명확히 뛰어났음을 보여준다.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저자가 젊은 여성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소설 홍보에 사용되기도 했으나, 동시에 그 나이에 성취했다고 믿기지 않는 노련한 전개와 풍요로운 문체가 더욱 부각되기도 했다. 이후 『나다』는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스페인 국민들이 유년기에 필수적으로 읽는 문학작품이 되었고, 출간 이후 70년 이상 지난 지금도 외국 독자들에게 대표적인 스페인 문학 입문서로 추천된다.

이 소설이 오랜 생명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시대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읽히는 다성적인 의미들을 품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본고의 핵심어 중 하나인 다성성(多聲性)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바흐친이 정립하여 문학비평 안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 용어는, 기본적으로 작가의 관점이 등장인물들의 관점들을 종속시키지 않고 인물들의 관점에 작가의 관점과 상충할 수 있는 독자성이 존재하기에, 결국 소설 속에 단일하지 않은 복수의 관점-목소리가 존재하는 현상 혹은 경향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나다』를 다성적 고전이라 명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소설의 화자와 여러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독자적인 관점들이 바흐친의 다성성 개념을 잘 구현하며, 둘째로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시대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작품의 의미들, 즉 작품이 계속 변화하는 독자층에게 건네는 다른 목소리들이 출현한다는 점이 이 소설의 중층적 다성성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런 복수의 의미와 목소리는 구체적으로 소설 전체를 구성하는 1인칭 화자의 관점과 서술방식을 통해 생성된다. 화자는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일견 서로 합치되지 않아 보이는 사실들을 자신의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며 그 모순들의 기저에 있을 의미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러기에 각각의 독자는 화자의 이야기의 뜻을 능동적으로 도출해내야 하며, 이 해석은 독자가 속한 사회의 문화에 의지하되 개인적 관점과 상상력을 통해 완성된다. 40여 년간 지속된 군사독재 아래서 스페인 사회는 조금씩 변화해 갔고, 프랑코 총통 사후 민주주의로의 전환기를 거치고 포스트모던 사회로 진입하면서 가치들의 급격한 전환이 일어났다. 그 안에서 스페인 독자 대중의 관점 역시 크게 변화했으나, 『나다』는 유효기간이 끝나기는커녕 변화하는 관점들 앞에 새로운 메시지들의 층을 펼쳐왔기에 여전히 고전의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 스페인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나다』에 대한 한국 연구자들의 논문은 거의 없다시피하며, 이 작품의 넓은 의미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논문은 아직 쓰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기도 한 연구는 이 소설이 탄생한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맥락과 그 안에서의 작가 개인의 삶과 성향을 소개하면서, 그에 비추어 이 작품이 오랜 세월을 걸쳐 전달해 온 여러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작품의 가치가 스페인이라는 특정 지역을 넘어 우리에게도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 『나다』의 출현 배경과 작가의 성향

1. 사회적 상황: 독재 군부의 억압과 통제

스페인 내전은 스페인 제2공화국의 좌·우파간 갈등이 극대화된 시점에, 반(反)공화국적 성향의 장교들이 연합하여 1936년 7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시작되었다. 공화정 지지 세력이 연합하고 세계 각지의 좌파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민전선’(Frente Popular)과 프랑코 장군을 중심으로

몽친 우파, 즉 ‘국민파’(nacionalistas) 사이의 전쟁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사상자를 남기고 근 3년 후인 1939년 4월에 끝났다. 승리한 국민파는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중세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아랍을 추방한 기독교 세력의 신화를 빌려왔다. 국민파의 승리와 프랑코의 통치는 신의 섭리이고 쿠데타 정부는 신의 대리자라는 서사가 ‘올바른’ 스페인의 건국신화로 세워졌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와의 친교를 과시한 파시스트적 정부는 가톨릭 교리와 가부장제, 군대 문화를 국가의 근간 사상으로 천명했고, 이를 벗어나는 언행과 생각을 ‘빨갱이’¹⁾의 것이라 이단이라고 정의하고 폭력적으로 배척했다. 특히 전쟁 전에 공화파를 지지했다고 여겨지거나 공화국 정부의 공무원이었던 이들에게 낙인을 찍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일상 속에서 따돌리는 등 공적·사적 영역에서 보복했다. 또한 정치적 ‘빨갱이’는 아니라도 정부가 비도덕적이라고 규정한 외국의 철학책을 읽거나, 가톨릭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거나, 공식 스페인어인 카스티야 주(州)의 언어가 아니라 카탈루냐와 바스크 등 분리를 원하는 다른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소문이 나도 육체적·금전적·직업적 처벌 또는 강제 교정을 받았다. 이렇듯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백색 테러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행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자신의 ‘정상성’을 입증하려면 정부, 교회, 학교의 명령에의 복종을 체화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 침묵은 가장 모범적인 태도로 여겨졌다. 사회 지도층과 언론이 영합하여 “가만히 있으라”며 제시하는 행동지침 앞에, 개인은 이른바 ‘열성적인 침묵(el silencio entusiasta)’²⁾으로 호응해야 하는 어두운 시대였다.

1) ‘빨간색’이라는 의미의 스페인어 단어 로호(rojo)는 프랑코 치하에서 주로 공화파 또는 공산주의자를 의미했으나, 우리말의 ‘빨갱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프랑코 정권의 통치방식과 가치관의 지지자들이 그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을 매카시즘적으로 비방하는 데도 쓰였다.

2) 프랑코 정권이 국민에게 강제한 행동규범을 요약하는 데 반(反)프랑코파가 사용한 여러 표현 중 하나이다. 일간지 『데스티노』(Destino) 1939년 9월 9일자. Carmen Martín Gaité, *Usos amorosos de la postguerra española*, Barcelona: Anagrama, 1987, p.18에서 재인용.

2. 문화적 맥락: 새로운 예술에의 갈증

어떤 시대와 환경 속에서도 인간이라면 ‘빵과 장미’³⁾를 원하듯, 스페인 국민들 역시 굶주림을 채울 양식뿐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만큼 전적으로 종속되지만은 않던 정신을 위한 양식을 원했다. 그래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비판적인 지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바르셀로나가 수도인 카탈루냐 주에서 이러한 시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수도 마드리드에 비해 전쟁의 피해를 덜 입었고, 바다가 있어 식량난이 덜했으며, 전쟁 전 공화국 시절에 획득했던 자치권을 다시 잃고 전체주의 정부에 종속된 불만이 깊었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의 젊은 문인들이 창간한 문화 주간지 『데스티노』(Destino, ‘운명’ 혹은 ‘목적지’라는 의미의 스페인어)는 마비되다시피 한 스페인 문화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프랑코 정부의 악명 높은 검열이 기존의 수준 높은 문예지들을 사실상 폐간해 버린 상황이었기에, 『데스티노』는 그 지적 공백을 메움과 동시에 대중적인 인기도 끌어 높은 판매수익을 남기겠다는 야심을 갖고 출발했다. 지적이고 예술적인 자극에 목말랐던 대중은 억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이 데올로기로부터 비판적 거리를 두며 자유롭고 진지한 미학을 추구하는 잡지를 반겼다.

주간지가 안정적인 인기를 얻어가면서 『데스티노』의 운영진은 스페인 최초로 문학상을 제정할 계획을 세웠다. 좋은 소설과 작가를 발굴하여 사회 공익에 기여하고, 소설 판매 수입의 일부는 『데스티노』가 얻는다는 전략이었다.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달 문학상이 태어났다. 상의 이름은 『데스티노』의 초기 편집장이었고 향년 27세에 세상을 떠난 에우헤니오 나달의 성을 딴 것이었다. 1944년, 제 1회 나달 상 출품작은 총 스물여섯 편이었다. 적은 숫자였으나 개중에는 전쟁 전에 이름을 날렸던 기성작가의 소설도 있었다.

3) 20세기 초 미국의 페미니스트 노동운동가 로즈 슈나이더만이 “노동자에게는 빵도 필요하지만 장미도 필요하다”고 연설하며, 생존에 필요한 임금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노동조건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표현이다. 시인 제임스 오펜하이머가 이 표현을 차용하여 1911년에 쓴 시 ‘빵과 장미 Bread and Roses’ 이후로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정치 슬로건이 되었으며, 켈 로치 감독의 동명의 영화(2000)도 널리 알려졌다.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기 전 심사위원들 중 몇은 이 작가에게 당연히 당선 될 것이라는 약속에 가까운 장담을 해 주었다. 그러나 다행히 심사위원단이 한 이름 없는 신인의 『나다』라는 작품을 읽었을 때 이 부패한 약속은 취소 되었다.⁴⁾

‘나다’는 영어의 ‘nothing’ 또는 ‘nothingness’에 해당하는 단어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의미이며, 무(無), 허무, 부재, 무용함, 사소한 일 등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다.⁵⁾ 이 이야기는 창조적 정신을 의도적으로 억압하던 체제 아래의 소설이 지루하게 반복 재현하던 인물, 스토리,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있었다. “통속적인 것을 거부한다”라는 『데스티노』의 표어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관찰력과 문체를 보여주는 소설이었다. 이 작품은 곧바로 수상작으로 채택되었고, 출판 직후부터 권위 있는 비평가들로부터 막 세계 인식을 시작하던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독자들이 『나다』의 서술에 매료되었다. 현대 스페인 문단에서 가장 권위 있는 비평가이자 작가 중 한 사람인 프란시스코 움브랄은 당시를 회상하며 “『나다』는 새로운 스페인 문학의 장을 열었다. 어떤 의미로는 내전 이전의 소설가들을 은퇴시켜 버린 셈이다”라고 평가했고,⁶⁾ 전후 사실주의 소설의 대가 미겔 텔리베스는 “내전 이후의 소설에는 두 핵심적 작품이 존재한다. 카르멘 라포렛의 『나다』와 카밀로 호세 셀라의 『파스쿠알 두아르테의 가족』이다”라는 말로 이 작품의 혁신적인 면모를 강조했다.⁷⁾

요컨대, 다른 눈으로 보고 다른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금지당한 시대에 『나다』는 아름다운 문체와 다성적이고 모호한 메시지들을 통해 금지된 것을 성취한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당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이후 세대 작가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스페인 문학사 안에 하나의 이정표로 남았다.

4) Anna Caballé e Israel Rolón, *Carmen Laforet. Una mujer en fuga*, Barcelona: RBA, 2010, pp.154-167.

5) 본고에서는 우리말 번역본의 예를 따라 이 소설의 제목을 굳이 번역하지 않고 원어 발음을 우리말로 표기했고, 영미권 번역본 역시 ‘나다’를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한다. 학계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으로, 작품과 연결된 다성적이고 모호한 뜻을 살리면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6) Caballé, 2010, p.169에서 재인용.

7) Inmaculada de la Fuente, *Mujeres de la posguerra*, Barcelona: Planeta, 2002, p.57에서 재인용.

3. 저자의 생애와 성향: 가부장제에 대한 조용한 불복종

소설의 새로움에 경탄함과 동시에, 심사위원단과 대중은 그 소설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한 번 더 충격을 받았다. 22세의 여성 카르멘 라포렛은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스페인의 유명인사로 떠올랐다. 『나다』의 능란한 이야기 전개와 자유로운 표현력은 마치 중년을 지난 여성이 과거를 관조하면서 쓴 듯한 인상을 주었기에, 젊은 작가를 마주했을 때 문단의 놀라움은 한층 더 컸다. 근대 스페인의 지적 스승이었던 98세대⁸⁾의 일원인 아소린은 『나다』에 대한 평론 속에서 라포렛에게 말했다. “그 나이에 그런 작품을 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어째서 1900년생이 아닌신지요? 그 나이에 그렇게 아름다운 책, 소설미학을 혁신하는 책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⁹⁾

이렇듯 나이에 대한 문학계의 편견을 다소나마 약화시키는 데도 공헌한 카르멘 라포렛은, 언론에 의해 재능, 젊음, 구세대로부터의 독립을 표상하는 상징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작가 본인은 『나다』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안드레아처럼 내성적이고 관조적인 성격이었기에, 나라 전체가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는 상황을 고통스럽게 느꼈다. 언론은 라포렛에게 불시에 카메라를 들이대며 유명세 이전까지의 그녀의 사생활, 스타가 된 소감, 차기작 예고, 다른 작가들에 대한 평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까지 집요하게 물었고, 그녀가 답하면 그 대답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결국 작가로 하여금 언론과 대중의 관심에 대해 지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그녀를 대하는 당시 언론의 태도는 상당히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이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언론은 역시 당대의 스타 작가이며 남성이었던 셀라에게는 그녀에게 보여준 것처럼 고압적이고 강요하는 태도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

8)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발히 활동하고 스페인 근대 사상의 기반을 닦은 일군의 작가들이다. 1898년 미서전쟁의 패배와 그로 인해 마지막 식민지였던 쿠바,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 등을 미국에 빼앗긴 충격이 국민 전체의 정신적 위기로 연결되자, 국가적 자성을 촉구하면서 전통에서 출발하면서도 새롭고 발전적인 스페인의 정체성을 형성해갈 것을 주장했다. 스페인 최초의 근대적 지식인 세대로 여겨진다.

9) Azorín, “Réspice a Carmen,” *Destino*, 1945년 7월 21일자.

이다.¹⁰⁾ 철저히 남성 중심적 사회였던 전후 스페인에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할 만한 사회적 인식은 존재하지 않았고, 라포렛은 『나다』 등의 작품을 통해 볼 때 기본적으로 가부장적 관습들을 거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기에, 결국 이런 언론의 성차별적 태도는 이후에 라포렛이 공적 영역에서 모습을 완전히 감추고 은둔에 가까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21세에 『나다』를 쓰기 전까지의 라포렛의 생활은 다행히 내전의 포화를 피해간 것이었다. 그녀는 1921년 아버지의 고향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가족이 이사하여 이베리아 반도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라스카나리아스 제도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이곳에는 폭격이 없어 그녀는 비교적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주변에 그녀에게 정치적 의식을 키워줄 만한 사람도 없었다. 모친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부친은 소시민적으로 전쟁에서 이긴 쪽을 따랐다. 라포렛은 부친과 계모와는 사이가 썩 좋지 않아서 외로운 소녀시절을 보냈다. 침대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해서 혼자서 계속 써나갔고 친구들과 어울려 소소한 문예지를 만들기도 했다.

청소년기에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상상하는 것이었다. 오후 내내 돌아다니며 모르는 사람의 뒤를 쫓거나, 아무 집이나 벨을 누르고 허구의 인물이 사는지 묻거나 했다. 이런 엉뚱한 실험은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픈 갈망에서 나오는 것이었다.¹¹⁾ 당시 사회의 눈으로 보면 이는 더욱 괴상한 짓거리였다. 당시 그 또래의 스페인 소녀들에게는 다가온 사교계 데뷔를 꿈꾸며 어떻게 치장할지, 어떤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날지, 연인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고민하며 좋은 신부감으로 보이도록 스스로를 연마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 여성이 사교계에 데뷔한다는 것은 결혼적령기의 남성들 앞에 자신을 선보일 때가 되었다는, 말하자면 한 남자의 가정을 돌봐줄 부인으로서 선택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라포렛은 이런 공식적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납득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주인공 안드레아와 마찬가지로 주류 사회가 이른바 ‘이상한 여

10) Caballé, 2010, p.17.

11) Caballé, 2010, p.62.

자(chica rara)’라 칭하는 범주에 속했다.¹²⁾ 국가가 올바른 여성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삶에는 공부, 직업, 자아성취는 없었고, 순결한 연애, 교회 안에서의 결혼, 출산, 남편에 대한 희생적 내조와 자녀 양육이라는 절차가 전부였으며, 그런 과정에 관심이 없거나 수용을 거부하는 소수의 여성들을 칭하는 전형적인 용어가 ‘이상한 여자’였다.¹³⁾

라포렛은 18세에 바르셀로나로 가서 친척집에 머물며 대학에 진학, 3년간 철학 공부를 했고, 이후 마드리드로 가서 법대에 재학 중 『나다』를 집필해서 나달 상을 수상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아니었기에 결국 어느 쪽도 졸업하지는 못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직접 무언가를 체험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가정이나 제도가 가르쳐주지 않는 삶의 면면을 감각적, 직관적으로 배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24세였던 여성의 성년 연령에 이르지 않았던 그녀의 두려움은 자신의 아버지가 귀가를 명령해서 경찰이 자신을 라스 카나리아스로 강제송환하는 것뿐이었다. 당시에는 그것이 부친의 법적 권리 중 하나였다.¹⁴⁾

그녀가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달 상을 수상한 1년 후, 그녀는 자신의 원래 소망이었던 서커스단 보조역이나 해외에서의 가사도우미 일을 구하는 대신에 『나다』 집필 시기부터 그녀의 스승이자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던 문학비평가 마누엘 세레살레스와 결혼했다.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성격에 비교적 영향력 있는 문인이었다는 점에서 그에게 매료되었으나, 역시 평범한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고, 남편이 일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이사할 때 자신의 집을 따로 구할 정도로 독립적인 삶을 살았다.¹⁵⁾ 그럼에도 다섯 자녀를 두었고 25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했으며, 그 동안 언론으로부터 은둔했고 문단으로부터도 가급적 거리를 두었고, 크게 주목받지는 않은 세 편의

12) Carmen Martín Gaité, *Desde la ventana*, Barcelona: Espasa-Calpe, 1993, p.112.

13) Martín Gaité, 1987, pp.36-38.

14) Caballé, 2010, p.103.

15) 카르멘 라포렛 전기의 저자인 안나 카바예 인터뷰. 인터뷰어 미상, “Laforet siempre detestó la vida de esposa por las renunciadas a la libertad que suponía,” *Faro de Vigo*, 2010. <http://www.farodevigo.es/sociedad-cultura/2010/10/31/laforet-detesto-vida-esposa-renunciadas-libertad-suponia/486421.html> (검색일: 2017.02.02.)

장편소설과 두 권의 단편집을 더 발표했다. 1970년에는 공식적으로 남편과 헤어지고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과 쇠약해진 건강상태로 어려운 삶을 보냈다. 그녀의 자녀들이 본 어머니는 그녀에게 전통적인 주부의 역할을 원하는 남편, 억압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 정치적 싸움으로 얼룩진 문단의 분위기 속에서 괴로워하며, 소수의 가족과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은둔자였다. 노년기에 시작된 알츠하이머가 점점 악화되어 말과 기억을 잃어가다 2004년 향년 82세를 일기로 마드리드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스페인의 여러 도시에 그녀의 이름을 딴 거리가 생겼고, 2007년에는 그녀의 말년의 고통을 애도하는 의미로 그녀의 이름을 딴 ‘카르멘 라포렛 시립 노인돌봄센터’가 마드리드에 설립되었다.¹⁶⁾

지금까지 『나다』라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사회상과 작가의 성장과 생애를 요약적으로 살펴보았다. 수많은 생명을 빼앗고 경제적, 문화적 퇴보를 가져온 내전, 그 결과로 온 폭력적인 통제 사회, 새롭고 자유로운 예술에 대한 대중의 갈망, 사회가 규정한 여성의 역할을 수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었으나 가부장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도 없었던 카르멘 라포렛의 모호한 태도는 이 작품의 다성성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들이다. 이런 요소들을 시공간적, 문화적 맥락으로 이해하면서 작품의 의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Ⅲ. 상충하며 공존하는 『나다』의 의미들

1. 개략적인 줄거리

내전 직후의 스페인, 18세의 안드레아는 답답한 지방 소도시를 떠나 새로운 세상을 보러 바르셀로나에 도착한다. 그러나 새 생활에 대한 부푼 희망은 그녀를 받아주기로 한 외가 친척들을 접하면서 곧바로 무너진다. 아리바우 거리에 살고 있는 그들은 전쟁 때문에 가난해졌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

16) Caballé, 2010, pp.104-111.

로도 피폐해져 있다. 앙구스티아스 이모는 집 밖에서는 위선적이고 가족들에게는 잔인한 독설가이다. 후안 외삼촌은 무능하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른다. 그의 부인 글로리아는 게으르고 아둔하며 자신만의 환상에 빠져 있는 듯 보인다. 후안의 동생 로만 외삼촌은 빼어난 예술적 재능과 남성적인 매력을 지녔지만 주변 사람을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잔학한 사람이다. 안드레아를 비롯해 모두에게 다정한 유일한 사람인 할머니는 자식들의 싸움과 고통 앞에서 늘 희생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

안드레아는 이들 틈에서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간다. 친척집의 식사는 질과 양 모두 보잘것없고, 국가에서 나오는 고아 복지 연금에서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도 거의 없기에 그녀는 항상 배고픔에 허덕이고 다른 사치를 할 여유는 더더욱 없다. 악몽같은 바르셀로나에서의 삶에서 유일한 기쁨은 친구 에나와의 우정이다. 에나는 뛰어난 지성과 용기, 감수성, 미모를 갖춘 부유한 가정의 딸로 주변의 애정과 흠모를 독차지한다. 안드레아와 에나는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아끼는 절친한 친구가 된다.

안드레아는 친척들의 복잡한 내면을 점차 목격해 간다. 앙구스티아스는 사회의 시선 때문에 좌절된 애정의 상처를 안고 있다. 후안의 분노는 화가가 되고 싶었으나 재능이 없었다는 점에, 또한 글로리아가 로만에게 연정을 품고 있으며 자신은 금전적으로나 매력 면에서나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글로리아는 어리석고 게을러 보이지만 의외로 책임감이 있으며 사랑스럽기도 하고, 로만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망상은 로만 측에서도 이유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각자가 인식하는 현실이 조금씩 다른 가운데 가장 수수께끼 같은 존재는 로만으로, 전쟁 전에는 그렇게 잔혹한 거짓말쟁이는 아니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안드레아 자신도 주변 사람들의 알팍함과 속물스러움, 특히 그녀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의 제멋대로인 태도에 환멸을 느낀다.

어느 순간부터 에나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버리면서까지 로만과 가까이 지내게 시작하며, 안드레아를 피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는다. 단지 자신을 믿어달라는 말만을 남길 뿐이다. 에나의 엄마는 안드레아를 찾아와 자신이 젊은 시절 로만을 사랑했으나 그에게 야비하게 이용당했음을 털어 놓고, 에나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안드레아는 친

구에게 버림받은 슬픔과 에나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낸다. 어느 날 안드레아는 에나와 로만 사이의 적대적인 대화를 엿듣고 에나를 위협에서 구하기 위해 그 자리에 끼어들어 대화를 중단시킨다. 곧 후회하며 도망치지만 에나가 따라와 자신은 로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엄마에게 준 상처를 되갚아주려는 계획이었고 그것이 마침내 성공했음을 고백한다. 우정을 되찾고 집에 돌아간 안드레아는 로만이 자살했음을 알게 된다. 장례식에 온 로만의 누나들은 로만과 후안의 뒤뜰린 삶이 할머니가 아들들을 잘못 키운 탓이라 비난하며 후안도 이에 동의한다. 로만이 죽은 후에도 후안의 폭력성은 더해가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는 않는다. 안드레아는 에나 가족의 도움으로 마드리드에 일자리를 얻어, 1년간의 경험을 뒤로 하고 마침내 바르셀로나를 떠난다.

2. 소녀의 기이한 모험담 혹은 어두운 사회상의 재현

욕실은 마치 마법의 집 같았다. 거무튀튀하게 때가 낀 벽마다 거친 손자국들과 절망에 찬 절규의 흔적들이 담겨 있었다. 곳곳에 칠이 벗겨지면서 생겨난 구멍들은 습기 찬 입을 벌리고 있었다. 거울 위쪽에는, 달리놓을 곳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허연 도미 몇 마리와 속이 시커매진 양파 몇 알이 그려진 정물화 한 점이 걸려 있었다. 찌그러진 수도꼭지에서는 광기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¹⁷⁾

『나다』를 읽는 독자 대부분이 먼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주인공이자 화자인 안드레아의 눈에 비치는 친척들이 기괴한 인물들이라는 점, 이들의 일상생활이 안드레아가 이해할 수 없는 폭력과 광기로 얼룩져 있다는 점이다. 이 소설은 이렇듯 미지의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다는 면에서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소설이나 고야의 화풍,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등에 비교된 바 있으며, 이 때문에 고딕소설¹⁸⁾ 장르를 연상시키기도 한다.¹⁹⁾ 『나

17) 카르멘 라포렛, 『나다』, 김수진 역, 문예출판사, 2006, 22쪽.

18) 낭만적인 공포와 죽음을 다루며 종종 로맨스가 적당한 비율로 섞인 소설을 폭넓게 지칭한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되어 19세기 유럽에서 크게 유행했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에드가 앨런 포의 소

다』의 이러한 정조는 내전이 사회에 남긴 상처와 공포를 이용한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식화한 스페인의 국가 이미지, 즉 기독교적 가치를 열정적으로 실천하는 통일되고 건전한 공동체라는 이미지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회 구성원들의 실제 삶 속에서 가장 병들어 있는 면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이를 직접 지적하며 비판했다면 작품이 검열을 피할 수 없었을 뿐더러 작가는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을 것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가엾은 소녀가 병적인 사람들 틈에 던져진 고생담이라고 읽히는 낭만적이고 고딕소설적인 설정은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라는 정치적인 해석을 피하도록 도왔다. 실제로도 라포렛에게 직접적인 정치적 비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자가 뛰어난 관찰력으로 포착하고 재창조해낸 세계의 이미지 속에서 각 개인이 스스로 체험했던 사회의 어둠을 발견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소설은 안드레아의 친척들을 통해 당대 스페인의 어두운 면모를 형상화한다. 그들은 각자 비틀리고 모순된 면모들을 갖고 있지만, 모순이라는 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은 창조와 파괴 양쪽의 힘을 가진 로만이다. 처음 안드레아의 눈에 비친 그는 재치 있는 말솜씨와 매력적이고 다정한 태도를 지닌 천재적인 예술가로, 이 가족의 구성원임이 믿기지 않을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곧 형인 후안에게 잔인한 말을 던져 감정적으로 학대하면서 후안이 자제심을 잃고 폭력을 휘두르도록 조종하며 즐기는 가학성을 드러낸다. 또한 그는 후안의 부인인 글로리아를 과거에 유혹한 적이 있으며, 현재도 그녀를 무시하고 잔인하게 대하다가 멋대로 동침을 강요하는 등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 로만과 후안 사이의 광적인 애증의 관계는, 사이좋은 형제였던 두 사람이 전쟁 당시 생존을 위해 서로 다른 편에 합류하여 헤어졌었다는 과거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전쟁으로 분리된 스페인의 상처에 대한 은유로 작용한다. 또한 병든 사회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인물인 로만을 밝고 아름다운 세계를 대표하는 에나가 그의 폭력

설 등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고딕소설이다.

- 19) Aileen Dever, "La novela gótica y paralelos en *Nada* de Carmen Laforet," *The South Carolina Modern Language Review* 6, No. 1, 2007; Jordi Gracia y Domingo Ródenas, *Historia de la literatura española, 7. Derrota y restitución de la modernidad 1939-2010*, Barcelona: Crítica, 2011, p.363 참조.

에 용감하게 맞서서 이기도록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 말미에서 안드레아는 바르셀로나를 떠나며 그곳에서 자신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²⁰⁾다고 생각한다. ‘승리한 스페인’이라는 국가의 공식 담론이 무색하도록, 시골의 수도원을 나와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한 도시인 바르셀로나에서 1년간 지낸 안드레아에게 남은 것이 무(無) 뿐인 것이다.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당시 사회의 병적이고 낙후된 상황을 독자에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절묘한 셈이다.

프랑코 정부는 전후 40여 년간 강력한 검열 제도를 통해 문학, 예술, 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내전과 국가 정책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삭제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통해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고자 한다면 국가 이데올로기에 어긋나지 않는 메시지의 외피를 보여주면서도 그 아래 진짜 의미하는 바를 담아낼 줄 알아야 했다. 『나다』가 검열을 피하고 더 나아가 다성적인 소설이 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젊고 감성적이고 정치나 역사에 눈을 돌리지 않는 서술자가 자신의 즉각적인 감정을 진술하면서도 다소 모호하게 이야기한다는 점이었다. 거기서 고정되지 않은 여러 의미들이 생겨나거나 미뤄지거나 숨겨졌기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병든 인물들의 이야기를 화자 안드레아가 경건한 스페인 사회와 동일시한다는 근거를 검열관들은 굳이 찾지 않았다.²¹⁾ 이 일탈적인 인물들의 비참한 상황은 이들 고유의 특이성에서 비롯된 결과이거나 아직 사춘기를 벗어나지 않은 서술자의 감상적인 과장이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해석이었다. 그래서 겉보기에 이 이야기는 한 외로운 소녀가 털어놓는 기괴하고 감각적인 고생담으로 통했다. 검열의 주체들을 포함하는, 전쟁에서 승리한 편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유해할 것 없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전쟁의 공포와 트라우마를 겪고 가난과 정치적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대중에게는, 『나다』 속의 서로 의미 없이 상처를 입히는 가족들, 더럽고 이가 들끓는 집, 매순간 존재

20) 라포렛, 2006, 367쪽.

21) 이 작품의 허무주의적인 분위기는 프랑코 정권에 동조하는 독자들에게 고깝게 읽히기도 했다. 한 예로 『나다』 출간 직후인 1945년에 『전부』(Todo)라는 소설이 발표되었는데, 이 소설은 『나다』를 패러디에 가깝게 반전시켜 주인공이 신앙 속에서 ‘모든 것’을 얻고 충만한 삶을 찾는다는 결말로 끝났다. (Julio Rodríguez Puértolas, *Literatura fascista española*, Madrid: Akal, 1986, p.583.)

하는 굶주림은 어떤 정치적 연설보다도 생생히 마음에 가 닿았다. 부조리한 시공간 속에서 고뇌하는 안드레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그녀와 은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독자와 그렇지 않은 독자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3. 자아 형성과 세계 인식: 실존적 성장소설로서의 『나다』

누구도 의사를 부를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새에 열은 떨어졌고, 미열마저 가서버린 그 순간 나는 신기하게도 미미하나마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면서 덮고 있던 모포를 발 아래로 차내는 순간 바르셀로나의 이 집에 들어온 이래로 줄곧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그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마저 털어낸 듯한 느낌이 들었다.²²⁾

『나다』를 성장소설로 해석하는 시각은 오늘날 이 소설을 보는 가장 전형적인 관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²³⁾ 두 번의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나에 생명과 평범한 일상생활을 잃으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며 삶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실존주의적 의문²⁴⁾은 20세기 전반 서구 문학의 시급한 주제로 부각되었다. 두 세계대전 사이에 일어난 스페인 내전 직후에 쓰인 『나다』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을 기저에 두고 있다. 젊은 안드레아가 전통적 질서와 현대적 합리성 둘 다 부재하는, 의미를 잃은 세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탐색해 가는 성장기로 이 소설을 읽어낼 수 있다.

22) 라포렛, 2006, 75쪽.

23) Elizabeth J. Ordóñez, *Voices of Their Own. Contemporary Spanish Narrative by Women*, London and Toronto: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1991, p.33.

24) 실존주의라는 명칭 안에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철학의 여러 지류가 묶인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을 자유의지가 있는 주체로, 삶을 이 주체가 적대적인 환경을 극복하며 자신의 의지를 실천해가는 과정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실존주의는 스페인 98세대를 대표하는 철학자 미겔 데 우나무노가 논한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비극성, 프랑스의 참여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의 인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라는 생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전후의 억압적인 스페인 사회는 청년들에게 독립적인 자아 형성과 인격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체험의 가능성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안드레아와 친척들의 관계에서 이를 잘 볼 수 있다. 젊은 안드레아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기를 갈망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아리바우 거리의 친척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앙구스티아스는 조카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신의 기준,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의 규범에 맞추기 위해서 꾸중과 비아냥을 멈추지 않으며, 도리어 타인의 눈으로 보면 우스울 정도로 과도한 예법을 강요한다. 로만은 정반대 입장에 서서 안드레아가 자기 내면의 진정한 열정과 욕망을 억누르면서 답답한 관습의 틀에 스스로를 가둔다고 조롱한다. 그 외의 어른들 중에도 안드레아가 의지하고 모범으로 삼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후안은 조카에게 무관심하거나 폭력적이고, 글로리아에게 안드레아는 자신의 말을 들어줄 상대일 뿐이며, 할머니는 무기력하고 자진해서 다른 사람들의 착취의 대상으로서 머물러 있다.²⁵⁾

이렇듯 스페인 사회의 비관적 면면을 체화한 주변인들에게 안드레아는 일상 속에서 저항하면서 자신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어려운 과정을 밟아간다. 본디 관조적이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저 ‘어른들’에게 적극적으로 맞서지는 않지만, 이들에게 휘말리거나 묵묵히 복종하는 경우는 더욱 없다. 항상 거리를 두고 모두를 날카롭게 관찰하며, 자신이 알게 된 그들의 과거와 현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쪽을 냉정히 묘사하고, 거기서 모순이 생기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서술한다. 이 자유롭고 치우침 없는 관찰을 통해서 자신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그렇게 축적된 앎과 경험을 지니고 바르셀로나를 떠나며 인생의 중요한 성숙의 단계를 마무리한다고 볼 수 있다.

안드레아의 바르셀로나 생활에서, 개인으로서의 자유와 독립을 크게 제한하는 또 하나의 삶의 조건은 빈곤이다. 굶주림으로 인해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라는 것, 영양실조의 증상으로 항상 예민해져 있어 사소한 이유로도 남들과 싸우게 된다는 것, 미래를 고려해서 지출을 안배하는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기에 적은 수입을 모으는 대신 군것질이나 식당에서의 한 끼

25) Marsha S. Collins, "Carmen Laforet's *Nada*: Fictional Form and the Search for Identity," *Symposium* 38, No. 4, 1984, p.298.

식사와 같은 눈앞의 유혹에 써버린다는 것, 책이나 친구를 위한 선물, 남부끄럽지 않은 옷 등 삶에 인간적인 여유를 부여하는 지출을 포기하고 오직 생존 자체를 위한 생존을 영위한다는 점, 이는 모두 안드레아의 가난이 동반하는 현실의 고통이다. 친척들의 광기에 가까운 언행과 서로간의 싸움 역시 이 가족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었더라면 생겨나지 않았을 일들이다. 이런 점은 대학의 부르주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 안드레아가 느끼는 해방감과 대리만족에서 더 명확히 드러난다. 그들은 물질적 여유가 없을 때 생기는 장애에 부딪힌 적이 없기에 자신감이 넘치고 사교적이며, 유머와 감수성을 발달시킬 기회도 충분히 누려 왔다. 안드레아는 자신의 낡은 단벌옷과 병적인 가정환경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하면서도, 에나와 대학 친구들이 대표하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에 깊이 매혹된다. 그러나 동시에 대학 친구들이 속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크고 작은 소외감을 느끼는 경험도 하며, 이를 통해 부르주아 계층의 위선적인 면모와 사회계층간의 괴리에 대해 깨닫는다. 이런 배움은 안드레아로 하여금 소설 마지막에서 에나의 가족들이 제공하는 물질적으로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듯 안드레아는 사적 영역인 가족 내부, 그리고 공적 영역인 사회에 존재하는 인간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요소들을 접하고, 그것이 개인의 삶과 자아의 형성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소설 전체를 통해 학습해 간다. 전쟁이라는 사회적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는가를 배우고,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이 품고 있는 가능성들을 맛보며, 그런 가능성들로부터 배제되고 차별받는 순간도 체험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안드레아는 그녀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무겁고 복잡한 구조를 인식하고, 자신이 그것에 적응하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깊이 실감한다.

주인공의 모든 경험이 고통스럽기만 하다면 『나다』는 삶의 비관성을 단일한 관점에서 토로한 소설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소설의 대표적 특징인 모호한 양가(兩價)성은 안드레아의 성장에서도 볼 수 있다. 안드레아의 고통스러운 배움의 과정을 지탱하는 에너지는, 소설을 통틀어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단 한 사람이며 상황을 변화시킬 힘과 적극성을 가진 유일한 인물인 에나의 존재이다. 이 소설에서 묘사되는 인물들 사이의 관계는 대부

분 서로를 지배하고 종속시키려는 욕망에 기반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에나와 안드레아의 관계만큼은 사랑을 동력으로 자라난다. 이 사랑의 관계 덕분에 수동적이고 무기력하던 안드레아는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난다. 눈앞의 부조리한 일들에 개입하지 않고 관찰자로서만 살아가고 있음에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던 그녀가 최초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고 변화를 시도하는 순간이, 에나의 엄마가 안드레아에게 에나를 도와달라고 청하는 순간인 것이다. 에나와 로만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극도에 달한 순간 로만의 방에 안드레아가 용감하게 들어간 행동을 두고, 나중에 에나는 자신이 안드레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한다. 이전까지 둘 사이의 관계는 에나가 안드레아를 리드하고 안드레아는 에나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었으나, 이 일을 통해 둘의 애정은 동등한 주체성 위에 세워지게 된다.²⁶⁾ 소설의 결말에서 안드레아는 죽은 로만에 대해 그가 살았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그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자신이 글로리아 외숙모에게 애정을 느낀다는 사실도 깨닫는다. 이런 변화는 그녀가 자신에게 독자적인 주체성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수동적으로 억압당하는 입장을 벗어나 자기결정권과 포용력을 지닌 주체로 변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안드레아의 변화와 관련하여 『나다』를 현대의 ‘로망스romance’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²⁷⁾ 노스롭 프라이의 정의에 따르면, 로망스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극단으로 갈라진 세계 안에서 뛰어난 인물인 영웅이 악에 맞서는 모험을 하는 이야기이다.²⁸⁾ 영웅은 마침내 악을 물리치고 더 완벽한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며, 종종 새로운 신분이나 정체성을 획득한다. 이 장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세 이전부터 높은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 오늘날에도 할리우드의 히어로물이나 판타지 소설 등의 장르 안에서 이 전형적인 구조는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나다』도 이러한 서사 구조와 몇 가지 유사성을 보인다. 안드레아가 바르셀로나 안에 숨어 있는 어둠의 세계와 광기 어린 인물들 사이에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각각 로만과 에나가

26) Collins, pp.303-304.

27) Collins, p.305.

28) 노스롭 프라이, 『비평의 해부』, 임철규 역, 한길사, 2009, 96쪽, 299쪽, 363-368쪽 참조.

대표하는 악과 선이 대립한다. 1년이라는 상징적이고 주기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안드레아의 모험은 희망과 절망, 꿈과 환멸이라는 대조적인 상태 사이를 오간다.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이분법적 구조는 종종 모호하게 흐려지거나 서로 자리를 바꾼다. 예를 들어 에나가 자신에게 타인을 조종하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안드레아에게 고백할 때, 에나의 내면에도 로만과 유사한 악이 존재하며, 에나와 로만의 대립은 매우 닮은 두 힘 사이의 긴장이었음이 드러난다. 이런 이분법의 해체는 개인의 내면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현대 소설로서의 작업이며, 『나다』 특유의 다성적인 모호성을 구성한다. 이렇듯 전통적이고 대중에게 익숙한 이야기 구조를 빌려오면서도 실존적 자의식, 동시대의 사회상, 단순한 인식 범주의 해체와 같은 현대적 이슈를 다루었다는 점 또한 이 소설이 다양한 독자들에게 호소력을 갖도록 한 하나의 특징이다.

4. ‘분홍 소설’의 허구와 가부장제의 신화 고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헤라르도 역시 그저 수컷에 불과하며, 여자 앞에서는 이런 식의 행동밖에는 할 줄 모르는 술한 남자들 가운데 하나임을 깨닫지 못할 만큼 내가 그렇게 맹추였기 때문이었다. 그에게는 지성도, 감성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애였다. 헤라르도는 이번엔 느닷없이 나를 자기 옆으로 바짝 잡아당기더니 내 입술에 키스했다. 화들짝 놀란 내가 그를 밀쳐냈다. 나는 있는 힘껏 그를 밀쳐낸 뒤 마구 뛰었다.²⁹⁾

스페인의 대중문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분홍 소설’(novela rosa)이라는 장르가 빠질 수 없다. 이는 스페인어권에서 로맨스 소설을 칭하는 용어로, 보통은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모범적 자질을 갖춘 여성 주인공이 역경을 이겨내며 그 보상으로 이상적인 남성 주인공과 결혼이라는 결합 안에 맺어진다는 구조를 지닌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분홍 소설은 가부장제 사회의 규범과 가치관에 매우 잘 부합한다. 여성이 남성을 만나 결혼하는 과정 전체를 자연스럽게 당위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미모, 온

29) 라포렛, 2006, 184쪽.

유함, 인내심, 순종적인 성격 등이 필수불가결함을 부각시킨다. 또한 그 보상으로 그녀가 만나게 되는 남편은 인격적으로 완전무결하기에 그와의 행복은 굳건하다는 허구적인 신화를 재생산한다. 20세기 스페인에서 분홍 소설 장르의 여성 독자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오늘날의 TV 멜로드라마처럼 로맨스와 결혼에 대한 환상을 자극함과 동시에 보수적인 가치관을 강화했다.

프랑코 치하의 스페인은 극심하게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였다. 정부 기관인 여성부(Sección Femenina)는 스페인 여성의 교육을 총괄하고 지침을 내렸는데, “여성은 스스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코의 정당인 팔랑헤 당의] 생각을 사랑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육받아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³⁰⁾. 사회 속에서 여성에게 허락된 역할은 아내와 엄마가 되는 것뿐이었고,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받는 교육 또한 가사, 육아, 남성의 일에 대한 조력이라는 분야로 한정되었다.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경우 허락된 직업은 수녀뿐이었고, 미혼여성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직업은 비서 정도였다. 그런 사회였기에 “이기주의는 남성의 몫, 자기 희생은 여성의 몫이어야 한다”라는 지나라한 차별적 언사가 최고위급 정치인의 연설문에 포함되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³¹⁾

모범적인 가정주부가 삶의 목표여야 하는 미혼여성이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들 가운데에는 너무 튀지 않게, 그러나 매력적으로 외모를 꾸밀 것, 남성들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동의를 표할 것, 감정을 억누르고 항상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태도를 유지할 것, 외출할 때는 가급적 동행인과 함께할 것, 늦은 시간에 외출하지 말며 피치 못할 경우에는 남성과 동행할 것 등이 있었다. 분홍 소설은 당시 여성 문학과 거의 동일시되는 장르였고, 이 장르의 주인공들은 반드시 위와 같은 행동규범을 체화하고 있었다. 만약 피치 못한 사정으로 그런 불문율들을 지키지 못할 때는 반성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이른바 ‘개념녀’들이었다.

30) Ángel Pérez Trompeta, “La formación de la mujer española en la Sección Femenina de F.E.T y de las J.O.N.S: la enciclopedia para cumplidoras del servicio social”, *Indagación: Revista de Historia y Arte* 2, 1996, p.164.

31) Pérez Trompeta, 1996, p.165.

그러나 안드레아는 분홍 소설의 주인공이 되기에 충분한 낭만적 조건들(젊음, 고아인 신분, 가난, 불행한 환경)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범들에 대해서는 애초에 무신경한, 전례 없는 여성 주인공이었다. 그래서 이 글 앞에서 언급한 ‘이상한 여자’의 문학적 전범이 되었고, 새로운 여성 인물을 창조하려는 후대의 여성 작가들에게도 상징적인 존재로 남았다고 마르틴 가이테는 분석한다.³²⁾ 안드레아는 외모를 꾸미지 않고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도 하지 않으며, 수업조차 열심히 듣지 않고 오로지 주변을 관찰하며 독자적인 감각적 체험을 하는 데만 몰두한다. 에나를 포함한 대학 친구들은 그녀가 참으로 특이한 사람임을 종종 언급하고, 친척들마저 그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보수적이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앙구스티아스 이모에게 그 남다른 꾸지람과 경멸의 대상이며, 고독한 예술가인 로만 외삼촌에게는 동족을 알아보는 표식이 된다. 그러나 『나다』는 ‘이상한’ 안드레아 본인의 시각에서 서술된 이야기이기에, 독자는 모든 것을 우선 그녀의 눈으로 보게 된다. 그러므로 주류 사회의 시각으로 그녀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검열하기 이전에 그녀 개인이 즉각적으로 갖는 감정과 욕망들부터 실감하게 된다. 이는 분홍 소설 장르의 젊은 여성 주인공들이 전통적인 가치의 변호사 역할을 한다는 사실과 대척점에 서는, 『나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소설은 분홍 소설이 미화하는 가부장제하에서의 연애를 비웃고 반대로 여성간의 연대를 강조한다. 안드레아에게 구애하는 남성 인물들에 관련된 사건들은 안드레아와 독자 양쪽에게 현실을 대면케 한다. 첫째로 그녀와 헤라르도 사이의 일이다. 안드레아의 특이한 행동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혼자 하는 밤 산책이다. 그녀는 인적이 드물어질 정도로 늦은 시간에 뚜렷한 목적지도 없이 거리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이는 당대의 젊은 여성에게 기대되는 행동과 거리가 멀었다. 부조리한 주변 상황에 대한 반항심과 자유에의 갈망 때문에 안드레아에게 이런 습관이 생겼지만, 이는 앙구스티아스는 물론 후안 외삼촌에게마저 그녀가 멍청하고 타락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인다. 안드레아는 밤 산책 중에 안면이 있고 신분이 확실한 헤라르도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그녀가 매우 특이

32) Martín Gaité, 1993, p.112.

해서 친구가 되고 싶다는 데이트를 청한다. 안드레아는 에나의 무관심 때문에 몹시 외로웠기 때문에 며칠 후에 데이트에 응하지만, 그의 고압적이고 제멋대로인 태도, 잘난 척하려고 내뿜는 앞뒤가 안 맞는 말들에 질려 버린다. 당당한 체구에 멋진 양복을 차려입고 여성을 이끌어 주려는 의지로 가득한 청년은 분홍 소설뿐 아니라 당시 현실 속에서 젊은 여성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상이었고, 웬만한 단점은 눈감아줄 법한 존재였다. 그러기에 분홍 소설에서라면 헤라르도는 이상화되어 그려졌을 것이고, 현실에서였다면 혼기가 찬 여성들과 그 어머니들은 그의 단점들을 신앙심과 애국심으로 인내했을 것이다. 그러나 안드레아는 ‘이상한’ 여성이기에, 이 ‘구원자’를 가차 없이 거절하며 그의 어리석음을 단순하고 명확한 언어로 지적하고 거부한다.

두 번째는 대학 친구인 폰스와 안드레아의 관계이다. 폰스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남성성을 과시하는 헤라르도와 대조적으로 작은 체구에 배려심이 많다. 그는 안드레아에게 오래전부터 호감을 가져왔기에 그녀가 필요로 하는 선물을 하거나 자신의 부유한 친구들 패거리에서 그녀를 소개하는 등 일상 속에서 끈질기게 다정한 호의를 베푼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생일파티에 꼭 와 달라고 간곡히 안드레아를 초대하고, 방학에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로 휴가를 떠나자는 계획도 세운다. 안드레아는 폰스에게 우정 이상의 감정이 없지만 자신이 그를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 남자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에 여자로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이 관계는 분홍 소설의 독자들이 자동적으로 기대할 행복한 결말과 정반대되는 결과로 끝난다. 초라한 차림새로 생일파티에 간 안드레아가 직면하는 것은 폰스 어머니의 낮설어하는 눈빛, 아름다운 사촌 여동생에게 갑자기 사랑고백을 받은 폰스의 배신, 흥겨운 파티 한가운데 소외된 외로움이다. 신뢰할 수 있어 보이던 폰스가 사회계층간의 괴리를 극복할 만큼 성숙하지는 못한 사람이 밝혀지면서, 남성의 사랑이 행복을 보장한다는 신화의 허구성이 드러난다.

위 두 이성간 관계와 대조적으로, 에나와 안드레아 사이의 관계는 『나다』 전체를 통틀어 어떤 가장 공고하고 발전적이다. 둘 사이에는 에나의 이상적인 남자친구인 하이메조차 도달하지 못하는 강한 연대가 있다. 하이메는 에나와 로만 사이의 비밀스러운 대결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견

디지 못하고 결국 에나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안드레아는 에나에게 버려졌다는 소외감에 괴로워하면서도 그녀에 대한 강한 애정을 유지하며 로만을 이기도록 돕고, 그로 인해 둘 사이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진다.

주요 인물들과 안드레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도, 남성 인물들은 그녀에게 억압적, 폭력적이거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취함을 알 수 있다. 헤라르도와 폰스뿐 아니라 로만, 후안과의 관계 역시 그렇다. 길에서 마주치는 남자 걸인마저 동정심과 죄책감을 자극하면서 안드레아를 조종하려 든다. 그러나 여성 인물들과 안드레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며 이해와 존중 위에 세워진다. 앙구스티아스와 같은 억압적인 인물의 경우에도 안드레아는 그녀가 친척들 가운데서는 가장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실한 존재임을 인정한다. 할머니는 가족 모두를 배려하기 위해 늘 자신을 희생하기에 안드레아에게 연민과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후안의 부인인 외숙모 글로리아는 아둔하고 자아도취에 빠진 인물로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안드레아는 그녀가 의외의 판단력과 생존능력, 도덕심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며, 소설 말미에서 친척들과 헤어질 때에 처음으로 자신이 그녀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새로운 애정의 자각은 글로리아와의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독특한 것이다. 또한 에나와의 관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설 전체에서 유일하게 서로에게 힘을 주며 서로를 구원하는 깊고 순수한 애정이다. 에나의 어머니는 안드레아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딸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비밀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며 안드레아 역시 그 마음에 공감하는데, 이런 유연한 신뢰와 공감은 안드레아와 에나의 문제 해결과 성장에 결정적으로 연결된다.

요컨대, 『나다』의 주인공은 당대의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전형적인 여성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환멸, 공포, 피로감 등을 경험하며,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는 애정과 배려, 새로운 모범을 얻는다. 물론 『나다』가 처음부터 페미니즘적인 의도를 갖고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자 라포렛은 페미니즘이나 다른 정치적, 철학적 경향에 공식적으로든 작품을 통해서든 관심을 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소설의 인물과 서사 안에는 남성 중심적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이 섬세하게 다루어지며, 차별에 저항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혈연관계가 아닌 여성들 사이의 연대가 제시된다. 가톨릭과 가부장제

를 제외한 사상과 가치체계가 모두 배척되던 스페인에서 나온 소설임을 고려하면, 『나다』는 더욱 강력하게 페미니즘적인 텍스트로 보인다.

5. 억눌린 욕망들과 호모에로티시즘(homoeroticism)³³⁾

구질구질해 보이는 옷을 모두 벗어 던진 채 우리 앞에서 포즈를 취한 글로리아 외숙모의 모습은 흉물스러운 주변 모든 것들 속에서 믿기지 않을 만큼 어찌나 아름답고 환하게 빛나던지 하늘이 내려주신 기적과도 같았다. 곱게 뺨은 두 다리, 두 팔, 그리고 선이 섬세한 가슴속에서는 상냥하면서도 사악한 영혼이 숨쉬는 것 같았고,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한 따사로운 피부 위로는 날카로운 지성이 묻어나는 것 같았으며[...]³⁴⁾

배리 조던은 여러 비평가들을 따라 『나다』를 전형적인 성장소설 구조를 지녔다고 보는 대신, 여러 인물들의 억압되거나 좌절한 욕망들을 그려모은 파편화된 이야기로 파악했다.³⁵⁾ 『나다』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해석과 정반대 지점에 위치하는 해석인 셈이다. 이 이야기 전체가 안드레아가 꿈꾸었던 바르셀로나에서의 생활과 실제 현실 사이의 화해 불가능한 괴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조던의 해석은 반박하기 어렵다.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통해 괴물의 내면을 드러낸 로만, 예술가로서의 인정도 부인의 사랑도 얻지 못하고 좌절 속에 사는 후안, 아들들을 위해 많은 개인적 희생을 해 왔으나 희생의 보람은 얻지 못하는 할머니, 변해 버린 남편의 폭력과 가난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글로리아 등, 대부분의 인물들이 문제적인 삶을 살며 소설이 끝날 때까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지는 억압과 좌절은 타인에 대한 욕망, 즉 성욕과 관계에 대한 욕망에 관한 것이다. 도덕과 규범에 집착하던 앙구스티아스

33) ‘호모에로티시즘’은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성적 이끌림 혹은 그것을 내포하는 분위기를 지칭한다. 이는 호모섹슈얼리티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적 지향이 동성애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호모에로틱한 욕망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4) 라포렛, 2006, 47쪽.

35) Barry Jordan, “Laforet’s *Nada* as Female Bildung?,” *Symposium* 46, 1992, p.108.

가 실제로 상사와 불륜 관계에 있었으며, 두 사람이 결국 결합하지 못하고 전자가 수녀원으로 떠난다는 결말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들의 명료한 예이다. 또한 이보다 모호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독자의 해석에 맡겨지는 실패한 욕망들이 『나다』 안에는 촘촘히 심어져 있다. 로만과의 관계에서 에나, 에나의 엄마, 글로리아라는 세 인물은 각각 좌절하거나(에나의 엄마), 상대에게 좌절을 경험시키거나(에나), 주도권의 이동에 따라 자신이 좌절하기도 상대에게 경험시키기도 한다(글로리아). 전쟁 중 만난 후안과 글로리아 부부는 매우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이제 둘의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폭력과 관성, 동정심뿐이다. 후안과 로만 형제 사이에서 반복되어 굳어진, 후자가 전자에게 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사도마조히즘적 관계는 성적인 것은 아니지만, 후안이 자신을 확대하던 동생의 죽음 앞에 “애인을 잃은 여인이나 소중한 첫아들들 먼저 보낸 젊은 엄마의 고통”³⁶⁾을 보이며 절망하는 것 역시 애정의 기형적인 발전과 좌절을 보여준다. 깊이와 심각성은 다를지라도, 로만과 안드레아 사이에 아주 잠시 존재했던 이성적인 끌림과 긴장감, 안드레아가 헤라르도와 폰스와의 사이에서 겪은 일들 역시 관계의 계속되는 실패를 보여준다. 가정부 안토니아가 로만을 숭배함과 동시에 그들이 키우는 개를 인간 남성을 탐하듯 사랑한다는 사실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의 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르셀로나에서 저런 인간관계들을 수동적으로 관찰하며 보낸 1년 동안 안드레아가 통합된 정체성을 찾고 성장했다기보다는, 그녀의 욕망과 정체성이 그런 관계들 속에서 결국 억눌리고 파편화되고 포착하기 어려운 채로 남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다』라는 제목 역시 이런 시각에 잘 어울린다. 또한 이에 관련하여 다른 의문들도 제기할 수 있다. 안드레아가 에나와 로만의 싸움에의 능동적으로 개입한 것이 안드레아의 성숙의 증거로 해석되지만 이 개입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능동적이었는가, 단지 순간적이고 낭만적인 감정의 격발이 아닌가, 또한 어둠을 대표하는 로만의 자살도 안드레아와 에나의 긍정적 승리라기보다 로만이라는 개인의 좌절이라는 의미가 더 크지 않은가 등이다. 이렇듯 『나다』 특유의 의미적 모호성은 이 이야기 속에서 안드레아가 자신을 찾으며 성장했는가, 반

36) 라포렛, 2006, 350쪽.

대로 성장과 자아 정립에 실패했는가라는 확실할 수 없는 질문을 독자에게 던진다.

인물들 사이의 욕망과 관계에 대한 조턴의 해석에 기반하여, 사무엘 아마고는 안드레아의 성적체성과 성적 지향이 이야기 속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녀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19세의 나이로 스스로의 성적체성을 발견해가는 결정적인 시기에 있다고 지적한다.³⁷⁾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시기에 그녀와 남성들과 맺는 관계는 공포나 혐오감, 환멸로 마무리되는 반면 여성들과의 관계는 애정과 연대를 형성한다. 특히, 가장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서술은 안드레아가 글로리아와 에나 두 여성을 향해 행하는 호모에로틱한 관찰과 고백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안드레아는 글로리아에 대해 “머리가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내면으로부터 인간적인 매력이 솟아나는 스타일도 아니었다”³⁸⁾고 냉정하게 평가하며, 그녀에 대한 자신의 호감이 후안의 누드모델을 서는 그녀의 아름다운 육체를 보면서 생겨났다고 정확히 밝힌다. 글로리아의 몸을 보고 감탄한 날 안드레아는 처음으로 그녀의 방에 함께 가서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이 이후로 그녀에 대한 안드레아의 감정은 달콤한 나른함과 편안함으로 자리잡으며, 안드레아의 꿈속에서 그녀는 후안의 손에 애무받는 감각적인 이미지로 재현된다. 어느 날 후안이 그녀를 알몸으로 욕조에 몰아 넣고 구타한 뒤, 안드레아는 그녀의 몸을 닦아주고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함께 침대에 누우며, 그녀의 빨간 머리카락과 흰 목에 매료되고 그녀를 향해 순간적으로 흡혈귀와 같은 강렬한 허기를 느낀다. 직전에 자행된 잔혹한 폭력의 공포, 그것이 멈춘 뒤에 오는 이완과 피로, 늘 존재하는 굶주림이 결합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문득 호모에로틱한 관능이 출현하는 것이다.

에나의 경우, 항상 그녀를 찬미하는 안드레아의 시선은 우정과 그 이상의 감정 사이의 경계에 모호하게 걸쳐 있다. 안드레아가 그녀에게 선물한 손수건은 전통적으로 낭만적인 사랑의 맹세를 상징하며, 로만과 그녀가 대치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 안드레아는 그녀를 위기에 빠진 귀부인으로, 자신을

37) Samuel Amago, “Lesbian Desire and Related Matters in Carmen Laforet’s *Nada*,” *Neophilologus* 86, 2002, p.67.

38) 라포렛, 2006, 46쪽.

기사로 상상하기도 한다. 이야기 구조 속에서는 에나는 안드레아에게 환멸을 주는 부정적인 이성에 대상들의 반대 지점에 위치한다. 안드레아가 인상이 나빴던 헤라르도와의 데이트를 받아들인 이유는, 에나가 자신을 피한다는 괴로움이 깊어졌을 때 에나를 대신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안드레아는 폰스의 파티에는 무시당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허름한 차림새로 참석했으나, 에나의 집에 방문할 때는 연금을 낭비하다시피 써서 새 블라우스를 입고 장미다발을 선물로 가져가는 성의를 보였다. 두 남성과 에나가 안드레아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의식적 측면에서부터 대조적이며, 그녀에게 이성애보다 여성과의 우정 혹은 동성애적 욕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요소들이다.

소설 전체를 보았을 때 호모에로티시즘을 드러내는 요소들은 다양하나, 동시에 안드레아가 레즈비언이거나 바이섹슈얼이라고 확고히 단정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다. 이 점 역시 『나다』가 갖는 해석의 다성성의 일부분이다. 고려해야 할 점은, 동성애자들은 프랑코 치하에서, 특히 전쟁 직후인 40년대에 가장 집요하게 배척당한 집단 중 하나였기에, 라포렛이 자기 작품의 주인공을 명확하게 젠더퀴어로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의 스페인 사회에서 존재를 허락받은 유일한 섹슈얼리티인 이성애를 안드레아가 부정적으로 체험하며 반대로 동성과 긍정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은, 미국의 급진적 페미니스트 시인 에이드리언 리치가 말한 ‘레즈비언 연속체’(lesbian continuum)³⁹⁾를 연상시킨다. 『나다』는 이에 대한 하나의 문학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9) 리치가 1980년 논문 「강제된 이성애와 레즈비언 존재」(Adrienne Rich, “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Lesbian Existence”, *Signs* 5, No. 4, Chicago Press, 1980)에서 제시한 용어. 남성애에 대한 여성의 종속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가부장제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이성애를 강제한다는 전제하에, 이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제시한 여성들 사이의 모든 -반드시 동성애적일 이유는 없는- 유대와 경험의 연속체를 의미한다. 모녀간, 여자 친구들, 여성 동료들, 여성 간호사와 여성 환자 등,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종종 사소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당하는 여성들 사이의 관계의 가치를 가시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Miriam M. Johnson, *Strong Mothers, Weak Wives. The Search for Gender Equ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p.34에서 재인용.

IV. 결론

본고에서는 스페인 내전 직후에 발표된 소설 『나다』가 스페인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제공해 온 여러 의미들을 살펴보았다. 당대의 어두운 사회 분위기 묘사, 자신과 세계에 대해 배워가는 젊은 주인공의 성장, 가부장적 사회 비판과 여성 연대의 강조, 좌절되거나 주류가 아닌 욕망들의 탐구 등, 『나다』는 역사와 문화의 흐름 속에서 계속 새롭게 가시화되는 인간의 다양성을 재현해내는 중층적인 유연성을 가졌다.

물론 이에 더해 독자는 개인으로서의 관점과 경험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나다』의 섬세하게 직조된 모호성이 인간의 모순되고 복잡한 내면을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야기 속에서 선과 악, 성공과 좌절, 쾌락과 고통의 이분법이 흐려지거나 역전되거나 숨겨진 의미를 드러낼 때, 독자는 명확히 정립되어 있던 세계를 다르게 보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한다. 그러기에 또 다른 지역과 문화에 속하는 독자들과 만날 때 『나다』는 새롭고 고유한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다. 한국 독자들이 이 소설을 널리 소개받는다면 스페인에 대해 새로운 지식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문화의 구체적 맥락 속에서 생겨나는 또 다른 메시지들을 발견할 것이며, 또한 이 과정에서 작품 수용 관점의 차이와 그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한국의 인문학 연구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노스롭 프라이, 『비평의 해부』, 임철규 역, 한길사, 2009.
- 카르멘 라포렛, 『나다』, 김수진 역, 문예출판사, 2006.
- Amago, Samuel, “Lesbian Desire and Related Matters in Carmen Laforet’s *Nada*,” *Neophilologus* 86, 2002.
- Azorín, “Réspice a Carmen,” *Destino*, 21 de julio de 1945.
- Barry, Jordan, “Laforet’s *Nada* as Female Bildung?,” *Symposium* 46, 1992.
- Caballé, Anna y Rolón, Israel, *Carmen Laforet, Una mujer en fuga*, Barcelona: RBA, 2010.
- Collins, Marsha S., “Carmen Laforet’s *Nada*: Fictional Form and the Search for Identity,” *Symposium* 38, no. 4, 1984.
- De la Fuente, Inmaculada, *Mujeres de la posguerra*, Barcelona: Planeta, 2002.
- Dever, Aileen, “La novela gótica y paralelos en *Nada* de Carmen Laforet,” *The South Carolina Modern Language Review* 6, No. 1, 2007.
- Gracia, Jordi y Ródenas, Domingo, *Historia de la literatura española 7. Derrota y restitución de la modernidad 1939-2010*, Barcelona: Crítica, 2011.
- Johnson, Miriam M., *Strong Mothers, Weak Wives. The Search for Gender Equ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 Laforet, Carmen, *Nada*, Barcelona: Destino, 1945.
- Martín Gaité, Carmen, *Usos amorosos de la posguerra española*, Barcelona: Anagrama, 1987.
- _____, *Desde la ventana*, Barcelona: Espasa-Calpe, 1993.
- Ordóñez, Elizabeth J., *Voices of Their Own. Contemporary Spanish Narrative by Women*, London and Toronto: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1991.
- Pérez Trompeta, Ángel, “La formación de la mujer española en la Sección Femenina de F.E.T y de las J.O.N.S: la enciclopedia para cumplidoras del servicio social,” *Indagación: Revista de Historia y Arte* 2, 1996.

Rodríguez Puértolas, Julio, *Literatura fascista española*, Madrid: Akal, 1986.
Anónimo, Entrevista con Anna Caballé, “Laforet siempre detestó la vida de esposa por las renunciaciones a la libertad que suponía,” *Faro de Vigo*, 2010. <http://www.farodevigo.es/sociedad-cultura/2010/10/31/laforet-detesto-vida-esposa-renunciaciones-libertad-suponia/486421.html> (검색일: 2017.02.02.)

❖ ABSTRACT

Carmen Laforet's *Nada*: A Canon of Polyphony

Seo, Eunhee

This work introduces *Nada* (1944) by Carmen Laforet in humanities in Korea, to add new knowledge about Spanish literature and therefore broaden and enrich humanities. When the opera prima of this Barcelonian author came to light, critics and the readers were shocked at a work that departed from the expiring Spanish novel under Franco's anti-intellectual and anticreative regime, to renew it indefinitely. That was more than 70 years ago, and today the freshness of Andrea's story continues to prevail, thanks to its most outstanding feature: polyphonic ambiguity in its text, which allows the novel to include and develop different and contradictory meaning. This investigation addresses several critical readings of *Nada*, produced and extended inside and outside Spain. These readings, together, reveal the exceptional flexibility and complexity of *Nada*, a work of fiction that reflects and recreates multiple aspects of the human being.

Key Words : *Nada*, Carmen Laforet, polyphonic text, social contexts and new interpretations

■ 논문접수일 : 2017. 5. 10

■ 심사완료일 : 2017. 5. 31

■ 게재확정일 : 2017. 6. 2

